

전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중소기업벤처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신중양시장·모래내시장 선정 2년 간 약 8억여원 투입... 추억의 포차 거리·치맥가맥 축제 특성화 추진 전주시,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 박차

전주 모래내시장의 치맥가맥 축제와 신중양시장의 추억의 포차거리가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실시한 '2018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전주신중양시장과 전주모래내시장 2개소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정부

가 특성화기반이 구축된 전통시장에 한하여 특성화된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은 각각 2년간 최대 8억6000만원(국비 4억3000만원, 지방비 4억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모래내시장은 상인들의 주도로 '모래내 치맥가맥 축제'를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더 발전시킨다.

또한, 신중양시장의 경우, 추억의 포차 거리를 시장 대표 상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하반기에는 앞서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선정된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신중양시장 등 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주차장 및 신중양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에 힘을 기울인다. 시는 향후에도 각 전통시장 내 필요한 시설들을 파악한 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용편리성과 살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모두 갖춘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은자 시 신성상산업본부장은 "서민경제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특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아파트서 추락한 아내 남편은 '어디에'

정읍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한 뒤 14일이 지났지만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A(26·여)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 추락 직후 남편인 B(34)씨는 119에 신고한 뒤 곧장 사라졌다. 자신의 차를 끌고 나가 정읍시 감곡면의 한 도로변에서 차를 두고 잠적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추락 직후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곧장 병원으로 옮겼고, 추락하며 나무 위로 떨어져 충격이 흡수된 덕분에 A씨는 이를 뒤 깨어났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부는 2개월 전 결혼해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의 주변 사람들은 B씨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B씨는 구조 신고를 하고도 현장에서 사라져 강력범죄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아내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했는데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심쩍은 상황에 경찰은 폐쇄회로 CCTV와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 B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B씨가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단서를 남기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뉴스시스



3일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에 '혁신동 주민센터 임시 청사' 개청식이 열리고 있다.

혁신동 주민센터 개청식 성료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에 혁신동 임시청사 개청 2021년까지 주민센터·문화시설 갖춘 정식 청사 건립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지난 1일에 혁신동을 개청하고 3일 오전에 혁신동 주민센터 개청식을 가졌다. 혁신도시의 경우 그간 완산구 효자4동과 중동, 덕진구 장동과 만성동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구역 일원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후 효자4동이 인구 7만여 명을 상회하면서 민원업무가 폭주해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래서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주민 투표를 실시, 행정구역조정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 공포, 혁신동을 신설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새롭게 개청하는 혁신동 임시청사 개청을 통해 인구과밀현상과 행정구역이원화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는 하나빌딩(오공로43-24)에 자리 했고 1층 민원실(363㎡), 4층 주민자치프로그램공간(336㎡)으로 구성 됐다. 정식 청사는 오는 2021년까지 중동 852 일원 부지에 주민센터와 문화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혁신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혁신동 진교훈 동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설동이니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동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복숭아 신제품 '유미' 현장평가회 진행

농촌진흥청, 육성 복숭아 8품종 신규과원 조성 농업인·종묘업체·관련공무원등 100여명 참석

농촌진흥청 육성 복숭아 신제품 '유미' 현장평가회가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위치한 하태조 농장에서 3일 오후 3시 전국 복숭아 주산지 농업인, 종묘업체, 농촌진흥청 등 관련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회는 복숭아 '유미' 무봉지 재배의 특성과 유의사항, 과일시식, 민족도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신제품 '유미'는 농진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남부지방은 6월하순부터 7월상순에 수확가능하고 과일무게는 평균 280g정도, 당도 11Brix로 같은 시기에 나오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해도 품질이 좋으며 과육이 하얗고 부

드러우면서도 잘 무르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전주복숭아의 차별화를 위해 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비 360백만원을 투입 '유미'를 포함한 미홍 등 8품종의 국내육성 우수품종을 17농가 11ha에 식재 복숭아 신규과원을 조성하고 올해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봉지 재배가 가능한 '유미' 품종은 농가 일손을 덜면서 색과 맛이 뛰어나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전주 복숭아의 명성을 지키며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호두·도라지 재배농가 경영 안정 돕는다

전주시,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전주시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호두·도라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된 호두재배농가와 도라지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들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올해 정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호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에 모두 포함되고 도라지는 피해보전직불금에만 해당된다. 먼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으로,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했거나 한

중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농가 중 지난해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지급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직접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의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